

금주의 기도

지구촌 곳곳에서 핍박과 위기 속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더 강한 믿음을 주셔서 어떤 환경에서라도 신앙을 잃지 않고 늘 승리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금주의 말씀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을 가운데서 능히 견져내시게고 왕의 손에서도 견져 내시리이다
다니엘서 3장 17절

시리아 쿠르드크리스천 멸절위기

CT, IS와 싸운 쿠르드족 토사구팽에 피난 불가피...기도요청 보도

서방을 대신해 IS 격퇴전장을 누비던 이들에게 독립국과 자치권이라는 열매 대신 주변 열강의 역공이라는 냉엄한 현실만이 돌아오게 됐다. 시리아에서 미군의 지상군 역할을 했던 쿠르드족이 미군이 떠난 뒤 터키의 공격을 받으며 풍전등화의 위기에 내몰리기 때문이다.

쿠르드족은 독립 국가를 갖지 못한 세계 최대 민족이다. 주로 터키 남동부, 시리아 북동부, 이라크 북부, 이란 남서부, 아르메니아 남서부 등 5곳에 흩어져 살고 있고 전체 수는 3천만~4천만 정도로 추산된다.

쿠르드족은 20세기 초 '쿠르디스탄'이라는 독립국을 세우려고 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1920년 제1차 세계대전 후 연합국과 동맹국이 서명한 세브르 조약에는 쿠르드족의 독립국 건설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3년 뒤 서방 국가들은 이 약속을 내팽개쳤다. 당시 쿠르드족은 독립국 건설 약속을 믿고 서방 국가들과 함께 싸웠으나 전쟁 후 '토사구팽'을 당하고 지금까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게 됐다.

쿠르드족의 절반 정도인 1천500만명은 터키 동남부에 거주하고 있다. 터키 인구의 19% 정도에 달하는 적지 않은 수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시리아 북부 지역에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이다. 시리아 내전과 수니파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박해가 지속되는 동안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을 포함해서 시리아 인구 중 4.6%다.

또한 쿠르드족 교회(4만에서 5만명으로 추정)에서 같은 시련을 받고 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쿠르드족 교회는 아직 신학교 단계에 머물러 있다. 신학교나 정식으로 안수 받은 목회자도 거의 없는 형편이다. 그러나 쿠르드족은 이슬람을 알고 아랍어에도 능통해 향후 중동 선교의 촉매 자원으로 관심을 받고 있다. 시리아 내전으로 1만여명의 쿠르드족이 기독교로 개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터키의 침공과 해당 지역 장악으로 시리아와 쿠르드 크리스천들이 다시 한번 멸절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어, 지구촌 크리스천들의 중보기도가 간절하게 요청된다(Syrian Christians to US: 'Don't Abandon Us Now': After surviving a civil war and ISIS attacks, the Christian minority fears a Turkish takeover in Kurdish border region, Christians Killed on Syria's Front Lines: While Trump defends US withdrawal, advocates fear "Turkey will complete the work that ISIS tried to do, in eradicating Christians from this region").



미국이 시리아에서 철수한 뒤 쿠르드족이 터키군의 공격을 받았다. 아울러 쿠르드 기독교인들도 위기에 처해있다. 여성수비대(YPJ)도 전장에서 용맹을 떨쳤다. 과연 12세기 십자군 전쟁에서 유럽의

미국이 시리아 내 쿠르드를 지원한 것은 IS격퇴전 뿐 아니라 이란이 지원하는 시리아 정부를 군사적으로 견제하려는 의도도 있었다. 미국이 시리아 내전을 두고 언급하는 '온건 반군'은 통상 쿠르드군을 뜻한다.

쿠르드족이 시리아 북부를 지켜냄으로써 터키를 향한 IS의 복진이 저지된 덕을 본 터키는 이 전공을 발판으로 자국 내 쿠르드족의 분리·독립이 활발해질 것을 우려해 군사 작전을 강행했다.

터키는 자국 내 쿠르드족 무장정파인 쿠르드노동자당(PKK)이 YPG와 연결됐다고 주장한다. PKK는 터키와 미국, 유럽연합(EU)이 테러조직으로 지정한 조직이다. (3면으로 계속)



지구촌 비상사태에 대대적 공략 BBC, 기후변화대책 촉구위해 시위 벌이는 '멸종저항' 소개

'멸종저항'(Extinction Rebellion:XR)은 "권력의 중심부를 평화적으로 장악하고 폐쇄하겠다"며 런던과 암스테르담, 베를린, 뉴욕, 시드니 등 세계 곳곳에서 시위를 펼쳤다. 그렇다면 멸종저항은 어떤 단체이고, 이들은 지지하는 사람들은 누구이며,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가?(What is Extinction Rebellion and what does it want?)

'멸종저항'이란? 의 상징은 모래시계가 원안에 있는 것인데, 이는 멸종 위기종을 구할 시간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을 뜻한다.

'멸종저항'은 각국 정부의 공식적인 '기후적·생태학적 비상사태' 선언과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즉각적 행동을 요구하고 있다. 그들은 스스로를 '비폭력시민 불복종 환경운동가(non-violent civil disobedience activist movement)'로 칭하고 있다.

2018년 출범한 '멸종저항'은 전 세계 수십 개 도시에서 활동할 수 있을 만큼 수많은 나라에 지지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그들의 목표는 실현 가능한가? 영국에서 '멸종저항' 단체의 주된 목표는 다음 세 가지다:△정부의 기후변화 '비상사태' 선포 △영국에서 2025년까지 탄소배출 제로(0)를 달성하기 위해 법적 효력 있는 정책수립 △'기후변화 시민의회'의 구성

(3면으로 계속)

 시론 김한완 목사	 3면 한국선교 그 역사를 찾아서 손상용 목사	 7면 인터뷰 가진수 교수	16면
---	---	--	-----

ATS와 ABHE 정회원
최고의 온라인 교육

월드미션대학교

신학 / 상담학 / 음악학 / 간호학 / 유아교육 / 가정사역 / NGO사역

캠 퍼 스 | 온 라인

www.wmu.edu | (213) 388-1000 | 1500 Shatto Pl., LA, CA 90030

할렐루야 백화점

성경 / 기독교서적 / 일반서적 / 북스톡 / 성경 / 생애 학과 / 기쁜 / 교재 / 영성 / 영성서적

교회 · 사업체 · 달력 · 기념패전문

뉴욕 Tel. 718)762-0011
40-21 159th St., #10 Flushing, NY 11358

뉴저지 Tel.201)346-0030
5 Blenheim Terrace, Newark, NJ 07102

www.bestsaver.us 917-863-0301

기독교서적센터

The Christian Book Center

전품목 50% 할인판매

www.labookusa.com / cbc0191@hotmail.com
323-737-7699, 800-669-0451

1027 S. Western Ave., #2 L.A., CA 90006

영적 성장을 도와드립니다!

생명의 말씀사

교회 음향, 음성녹음기, 성경공부 수문 제작, 탁월, 선물 주문 제작

TEL. 714.530.2211 | Fax. 714-330-8080 | bibvestoro@gmail.com
9838 Garden Grove Blvd., Garden Grove, CA 92844

월드미션대학교

예배학 석사과정 개설

M.A. in Worship Studies

-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현대 예배의 패러다임 정립
- 다음 세대를 위한 예배의 전문화와 세속적인 문화에 맞선 깊은 영적 예배 추구
- 시대에 맞는 다양한 예배를 시도할 수 있는 예배 지도력과 콘텐츠 개발
- 글로벌 시대에 미래를 선도할 예배 모델 연구

특징

- 한국어로 개설되는 최초의 예배학 석사과정
- 48학점 (2년 과정)
- 캠퍼스 프로그램, 온라인 프로그램
- 사역자, 유학생 장학 혜택

강사진

Tommy Walker, Greg Scheer, Tom Kraeuter, Edwin Willington, 가진수 목사, 정종원 목사, 김성리 목사

예배 찬양 특별 세미나 "하늘의 예배를 회복하라"

10월 26일 (토) | 9AM-4PM
베델교회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주최: 글로벌워십미니스트리(Global Worship Ministry)
주관: 베델교회 | 후원: 월드미션대학교

대상: 목회자, 교회 리더, 예배인도자, 찬양인도자, 보컬, 악기 연주자, 예배자

등록: 선착순 150 | 등록비: \$ 80 (강의안, 식사제공) | 문의: 714) 337-4532

시리아 쿠르드크리스천 멸절위기

(1면에서 계속)

그러나 YPG와 PKK가 연 관했다는 정황은 의심할 수 있지만 그간 PKK의 근거지인 터키 남동부나 이라크 북부에 YPG가 병력을 보내지 않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의견이다.

오히려 터키가 이번에 공격한 YPG는 IS 격퇴에 집중했다. 터키 정부는 IS 격퇴를 명분으로 YPG를 지원하는 미국에 "테러조직으로 다른 테러조직을 제거한다"라며 불만을 표하곤 했다.

터키의 군사작전이 시작되자 YPG를 지원한 미국은 등을 돌리고 말았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터키 대통령과 통화 후 7일 시리아 북동부의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결정하자 사흘 뒤 터키는 공격을 개시했다. 결과적으로 미국이 터키에 쿠르드족 공격의 문을 열어준 셈이다.

"쿠르드족이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돕지 않았다"라는 역사적 사실과 다른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쿠르드족이 직면한 절박한 생존에 대한 그의 단편적 인식을 드러낸다.

동맹을 배신했다는 거센 비판이 일자 트럼프 대통령은 양측을 중재하겠다는 3인칭 관찰자 시점의 어정쩡한 해법을 내놨다.

IS 격퇴의 선봉에 선 쿠르드족이 미국에 버림받은 것은 이라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이라크 북부의 쿠르드자치정부는 자체 군사조직 페슈메르가를 앞세워 IS 소탕에 혁혁한 전공을 세웠다. 페슈메르가는 2014년 이라크 북부와 서부를 휩쓴 IS를 막아내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

이라크 정부군이 지리멸렬한 전력으로 혼란에 빠졌을 때 페슈메르가는 풍부한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IS에 승전해 '죽음에 맞서는 자'라는 이름값을 톡톡히 해냈다.

IS는 2014년 6월 이라크 제2도시 모술에서 국가 수립을 선언하고 수니파 지역인 중서부와 북서부를 점령하다니 유전지대 키르쿠크에 밀고 들어왔다.

이라크가 자칫 테러조직의 손에 넘어가려던 위기에 서 정부군 대신 키르쿠크를 지켜낸 이들이 페슈메르가였다.

IS의 만행에 피신한 북서부 야지디족의 안식처가 된 곳도 쿠르드자치정부였고, 2017년 말 IS를 쫓아내고 이들의 고향 신자르를 되찾은 주력군 역시 페슈메르가였다. 미국과 유럽은 페슈메르가에 무기와 자금을 지원하면서 전공을 치켜세웠다.

이라크에서 IS가 거의 소멸하던 2017년 9월말 자치지역 3개 주에서 분리·독립 찬반 투표를 했다. IS 격퇴를 명분으로 독립 국가를 수립할 수 있는 최적의 기회로 판단한 것이다. 이라크 쿠르드자치정부에 독립 국가 수립은 민족의 숙원이다.

같은 쿠르드족이지만 혹은 독립에 방해가 될까 봐 쿠르드자치정부는 시리아와 터키의 쿠르드족과 거리를 둘 정도로 조심스러웠지만 미국의 차가운 외면을 피하지 못했다.

투표 결과 찬성표가 압도적으로 많았지만 이라크 중앙정부는 군사력을 동원해 쿠르드자치정부를 압박했다.

IS 위기 국면에서 쿠르드자치정부를 지원한 미국과 유럽, 이라크 중앙정부의 경고를 무시하고 쿠르드자치정부와 원유개발계약을 맺었던 러시아마저 등을 돌렸다.

심지어 미 국방부는 이 투표에 대해 '이라크 연방제를 무시해 합법성이 없다'라고 규정했다. IS 격퇴된 뿐 아니라 1991년 걸프전, 2003년 미국의 사담 후세인 정권 전복 과정에서도 미국과 함께했던 쿠르드족은 미국을 원망했다.

서방 열강의 암묵적 지지를 등에 업은 이라크 중앙정부의 압박에 결국 쿠르드자치정부는 페슈메르가가

통제했던 키르쿠크까지 이라크 중앙정부에 내주면서 독립의 꿈을 후일로 미뤄야 했다.

쿠르드자치정부의 독립 운동을 주도한 마수드 바르자니 당시 자치 수반은 "의지할 친구는 또다시 산박에 없다"라고 말하며 사임했다.

터키는 시리아 북부 완충지대에서 쿠르드족을 쫓아내고 100만-200만명의 시리아 난민을 재정착시키려 하고 있다.

또 터키의 공격으로 외국인 2천명을 포함해 포로로 잡혀 있는 IS 조직원 1만1천명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다시 말해서, 이들이 혼란을 틈타 재무장하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미 시리아 북부 지역을 침공한 터키 군에 의해 시리아 크리스천 3명이 폭격으로 사망했다고, CT는 보도했다.

시리아 국가회의 회장, 바삼 이사크는 NPR(National Public Radio)와의 인터뷰에서, "터키군은 우리 머리 위에 폭탄을 투하하고 있다. 이는 시리아, 쿠르드 크리스천들에게 당장 떠나라는 경고성 메시지다, 우리가 떠나야만 시리아 난민들을 데려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터키군의 이러한 만행은 분명한 인종 청소, 대학살이 분명하다"고 국제사회에 도움과 지원을 간절하게 호소했다.



시론

상식이 통하는 사회



김인환 목사 (전 총신대 총장)

현재 한국 검찰은 법무부 장관 조국씨의 아내와 그 일가에 얽힌 문제들을 수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보도된 수사의 내용을 보면 법률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도 그의 아내와 아들 딸 및 동생 등등 그 일가 친족이 범법자임을 알 수 있고, 그 가정의 가장인 조국씨 역시 그들의 범법행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쉽게 판단할 수 있다. 무죄추정주의에 의해 그가 아직 무죄라 할지라도 이런 자를 공식, 특별히 수사와 관련된 지위에 앉혀서는 안 된다는 것은 상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을 지휘하는 최고의 지위에 그를 앉혀 놓으면서 검찰 개혁의 책임자로 옹호하고 공공연히 검찰을 압박한다.

대통령을 지원하는 그의 세력들은 이러한 상식적인 판단을 부정하고 대통령의 상식을 일탈한 행위를 무조건 지지하고, 많은 국민들의 조국사퇴의 부르짖음을 외면하면서 조국수호를 외칠 뿐만 아니라, 심지어 그 일가족을 수사하는 검찰을 적폐의 대상으로 지목하면서 그들이 그렇게도 지지하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적폐의 수괴로 지목하고 그의 퇴진을 부르짖고 있다. 조국씨는 공공연하게 자신이 사회주의자임을 천명하고, 그가 사회주의자로서 가진 이상을 실현하겠다고 공언하였다. 그가 과거에 발표한 공산주의 사회를 지향하는 논문들이 속속 소개되고 있다. 현재의 대통령을 비롯한 운동권 집권세력은 모두 한국을 사회주의로 만들려고 한다. 이 사회주의는 역사적으로 반기독교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자들이 집권세력의 중심에 있으면서 이를 지지하고 추구하는가 하면 심지어 목회자들 중에서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 참으로 믿기지 않는 현실이 펼쳐지고 있다.

이러한 상식적인 판단을 거부하는 현 집권세력과 그 지지층에 환멸을 느낀 일반 대중이 진영과 이념을 떠나서 이들과 맞서고 있는 현상이 현재 한국의 상황이다. 필자는 지난 10월 9일 광화문 현장에서 이들의 조국 구속, 조국 퇴진, 문재인 퇴진, 문재인 하야의 외침 속에서 이들의 상식적 판단을 부정하는 세력에 대한 배신감과 허탈감, 자괴감과 분노, 한국의 미래에 대한 심각한 불안감을 몸소 체험할 수 있었다. 필자가 만난 기업가들은 한결같이 불안해서 한국에서 사업을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자는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상식적 판단을 거부하는 사람들로 만들고 있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얼른 떠 오르는 것이 우리들의 국민성 중 객관적 규범과 그에 따른 이성적 판단을 중시하기보다는 감정에 치우치는 면이었다. 이의 연장으로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무조건 좋아하고 내가 한 일은 무조건 옳은 일이라고 우리는 우리들의 일방적 근성이 떠올랐다. 그 결과 운동권 세력으로 지칭되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 유독 내로남불, 조로남불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의 정부가 우리들에게 가장 적나라하게 노출시킨 것은 그들이 과거에 부정하고 정죄하던 일들, 즉, 독재와 독식, 통제조작, 권력을 이용한 부정축재, 권력집단만의 사회를 형성하는 편파성, 사회정의와 평등성과 기회균등을 부정하는 일 등등을 지금 그들은 과거 정권보다 더 적극적으로 자행하는 교만과 고집, 위선과 이중성 및 자기모순의 모습이었다. 이들은 대중, 민중을 그렇게도 강조하면서도 그들을 지지하고 그들에게 맹종하는 그들의 대중과 민중만 있을 뿐 일반 보편적 대중은 안중에도 없다. 그러므로 그들은 우리 한국이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와 지향점을 배척하고 자기들만의 사회주의적 가치와 지향점을 향해 부단하게 전진해가면서 국민 대중을 무시하고, 상식에 어긋나고 상식을 초월하는 행동을 거침없이 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에 의해 우리나라가 붕괴되는 현실을 우리는 지금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들 모두에게 이러한 이중성과 자기모순이 있음을 새삼 성찰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들이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의 신앙과 생활의 유일무이한 최고의 기준과 규범으로 삼고 성령의 성화의 사역에 지속적으로 순응하면서 매일 매일 우리 자신을 항상 반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자신으로 만들어 가면서 가정과 교회와 사회와 국가의 일원으로 자신에게 부여된 모든 책임을 잘 실행하는 인생을 살지 않으면 나 자신과 국가와 민족을 불행하게 만들게 될 뿐임을 절감한다.

성경은 창조주와 구속주이신 하나님의 영광 된 말씀으로서 인간이 추구해야 할 참된 인간상과 그 삶, 사회와 나라가 무엇임을 분명하게 지시해준다.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들의 신앙과 삶의 규범과 기준으로 삼고 상식적 판단을 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상식이 통하는 건전한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 여기에 나와 우리들의 행복과 발전이 있고, 미래의 희망이 있다.

지구촌 비상사태에 대대적 공략

(1면에서 계속)

6년 안에 탄소 배출량을 제로화 하는 것은 지나치게 야심찬 목표로 보인다. 이를 달성하려면 비핵에 대한 엄격한 규제를 도입하고, 고기와 유제품의 소비량을 극단적으로 줄이기 위해 전 국민의 식단을 바꿔야 할 것이다. 이밖에도 재생 에너지 사용의 엄청난 증가와 다른 근본적인 변화들이 일어나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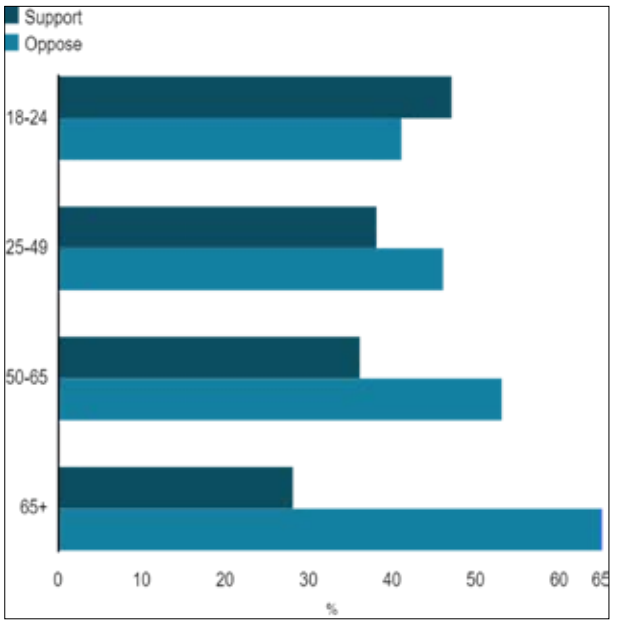
그럼에도 불구하고 '멸종 저항' 관계자들은 지구의 미래가 달려있는 문제라고 말한다. '멸종저항'의 공동 설립자인 가일 브래드브룩은 "우리는 이 상황을 너무 늦게까지 방치했기 때문에 이적에 가까운 방법으로 이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그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기후변화를 해결해야 하는지는 제시하지 않는다. 대신 정부가 무작위로 선출된 시민들로 구성된 기후변화 시민의회를 창설하고, 그 구성원들이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 해결책을 모색·결정하는 것이 '멸종저항'의 목표다.

이들의 전략은?

멸종 저항은 지난 4월 영국 런던에서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11일에 걸친 시위 기간 동안 런던에서 가장 바쁜 길들이 마비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1100명이 체포되었는데 대부분 이동을 요구하는 경찰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혐의였다.



시위 참가자 중 일부는 본인들의 신체 일부분을 접착제로 기차와 런던 증권거래소에 붙였고, 어떤 시위 참가자들은 히드로 국제공항으로 행진하거나 회사 슬로 본인들을 기물들과 묶기도 했다. (13면으로 계속) (3면에서 계속) '멸종 저항'에 따르면 지난 10월 31일부터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400여 명의 단체 구성원들이 추가적

Midwest University advertisement featuring a large image of the university campus, the text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and details about degree programs (ESL, Bachelor, Master, Doctoral) and contact information.

죄인된 인생의 연약함

최근에 교회를 방문한 어느 성도가 질문을 했다. 평생을 교수로 사시면서 은퇴하신 분이신데, 나름대로 학문의 지식을 가지신 분이시죠. 조심스럽게 질문하기를, 왜 목사님들은 영터리(?)같은 트럼프를 지지하느냐는 질문이었다. 불법이민자들에 대해 다리에 총을 쏘거나, 국경 접경지대에 공격적인 짐승을 풀어 놓아서 그들을 해치도록하며, 그의 말하는 언어들이 전혀 호감을 줄 수 없으며 지도자의 품격이 되지 못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많은 목사님들이 트럼프같은 사람을 지지 하느냐 하는 의문이었다.

갑작스런 질문에 이리저리 상식을 들어 설명하고자 우물쭈물 하고 있는데, 옆에 계시던 지혜로우신 집사님이 한마디 하셨다. '지지하는 정치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 자체를 신뢰하고 지지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의 정책 중 반동성에 등의 일부정책에 대한 지지일 따름이다. 사람자체를 어떻게 믿고 지지하셨나?' 전구를 반짝이게 만드는 명답이었다. 죄인된 인생의 연약함에 대해 적절하게 지적하면서, 듣는 이

전공하고 가르치는 교수의 신분으로 너무 법을 지나칠 정도로 애용(?)했다는 것이다. 편법이 너무 지나쳤다. 과거 그의 정의롭고 옳은 말들이 다시 그 자신을 옹아매는 울무가 되었다. 결과 속이 다른 내용들이 새로운 주말 드라마를 기대감 속에 보듯이, 기대를 무너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가족과 가문에게서까지 그 숨은 폐해들을 드러냈다. 재정운용에 있어서도 철저하게 속물 자본주의적 발상과 행태를 이어오면서도, 앞에서는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말과 글로 도배를 하며 많은 이들을 속여 왔다는 것에 많은 이들이 분노했다.

자녀를 위한 입시제도에 있어서 드러난 불법과 편법에도, 그와 그의 정치세력들은 절차의 불법성이 없음을 주장한다. 품앗이 하듯 가진 자들의 부모들이 상호 상부상조하는 데, 인맥이라는 능력이 없어서 그렇지 할 수 있으면 왜 못하겠느냐? 그렇게 지지받았을 이어간다. 대학이 인생을 결정하는 한국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길이라는 것이다. 지금 국회의원이 상 가진 자들의 자녀들을 조사하면 제2, 제3의 조국이 얼마나 많겠냐? 그렇게 반응한다. 실

진 기회들을 그는 아주 명석하게 이용한 것 아니겠는가? 자식성공 시키고 싶지 않은 부모 어디 있는가? 도적질을 해서라도 자식을 출세시키고 싶은 것이 부모 아닌가?

돈 버는 데 점잖게만 벌려는 사람이 몇이 되겠는가? 이 땅에 걸로 양복에 넥타이 매고, 뒤로는 음흉한 짓을 일삼으며 속과 겉을 다르게 포장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멀리 볼 것 없이 우리의 내면의 죄성을 생각할 때, 그 악함이 우리자신을 얼마나 놀라게 만들던가? 유명하지 않아서 그렇지, 조금이라도 우리가 누군가의 집중탐사의 주인공이 된다면 말정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드러난 것 보다 더 염려

조국 장관에 대한 '편법의 내로남불'과 '불공정의 정의'에 대한 염려는 인간의 죄성에 비추어보면 설명가능한 문제일 수도 있다. 그러나 먼 이민 땅 타국에서 살아가며 조국 대한 마음은 그러한 문제를 훨씬 넘어서는 것이다. 한마디로, 그의 사상과 행위의 결정 근거가 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라는 것이다. 사람자체보다 목적자체가 모든 지향점이 된다는 것이다.

변형된 사회주의적 관점이라고 말하지만, 과거 우리 부모세대가 겪었던 공산주의의 출산물과 같은 결과이다. 한마디로, 사상에 경도된 고집스러움이라고 할 수 있다. 아들과 딸, 부인 등 수많은 불법적인 일들이 매시간 보도가 뒀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방향을 향해서는 좌고우면 없이 직진한다. 마치 사상을 위해서라면 가족의 등에도 칼을 쏘았던 공산주의식 사고행태이다. 보통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인간에 대한 이해로서는 불가해한 일이다.

참과 거짓은 그 기준이 분명하지 않은가? 그러나 이들에게 참과 거짓은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평가기준만 있을 따름이다. 한국적 상황의 부적절성에 대해 대화를 나눠보면 단도직입적으로 나오는 말이 '너도 진일파냐?'부터 시작하는 것을 본다. 옳고 그름, 이해와 설득을 통해 드러낼 많은 일들에 대해 대화가 진전되지 못한다. 편협된 생각의 갈래들을 보면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 ? ?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의교회 / (310)749-0577
Johnjunghyunlee@gmail.com

Q: 로마가 적 기독교자로 기독교를 수백년간 핍박하였다가 콘스탄틴 황제 때에 기독교의 자유를 허락받았다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들었습니다. 이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것은 언제인지요?

A: 한국이 역사적으로 남과 북으로 갈라진 것처럼 이스라엘도 르호보기독교는 거의 300년에 걸쳐서 일곱 황제로부터 박해를 받았습니다. 박해의 주역에 담당했던 자들은 네로, 트라잔, 하드리아, 아우렐리우스, 데케우스, 발레리안 등이었고 4세기에는 303년 동안 마지막 마르쿠스 데오클리안 황제가 핍박하였습니다. 사실 데오클리안 황제는 그의 부인 프리스카와 딸인 발레리나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많은 신하들과 관료들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치안대와 군인들이 성경을 불태우고 기물들을 탈취하며 교회건물을 파괴하고 교회지도자와 직분자들을 체포하는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투옥된 제도자들은 로마의 신들에게 제사하게 하고 불복할 때는 가혹한 형벌을 가하였습니다. 그럴때 기독교가 새로운 희망의 빛을 보게 되었는데 콘스탄틴(Constantine The Great)의 등장이었습니니다.

305년 이후로 로마제국은 서방에서는 콘스탄티누스와 막센티우스가 제국의 권력을 장악하고자 접전했는데 결국은 한판 접전이 불가피했습니다. 콘스탄틴은 로마의 경쟁자인 막센티우스와 전쟁을 하기 위해 이탈리아로 출정하였습니다. 모든 정황을 살펴볼 때 콘스탄틴은 열세였습니다. 그는 기독교신자가 아니었고 미트라스라는 태양신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미트라스는 전쟁에 승리를 가져다준다고 믿는 종교였고 군인들이 선호했던 종교입니다. 큰 전투를 앞두고 있던 승리의 확신이 없어 고민하던 콘스탄틴은 그날 밤 꿈에 예기치 못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기독교의 상징인 십자가의 환상을 보았던 것입니다. 라틴어인 "인 후 시그노 빈세스" 십자가를 통해 너는 이것으로 승리하라"라는 말씀을 크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꿈에서 깨었지만 너무나 그 꿈이 강렬해서 신의 계시라 생각했고 그는 십자가를 모든 병사들의 방패에 그리고 그 방패를 들고 나가 싸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헬라어 "크리스토스"(Χριστός) 첫 두 글자인 키와 로를 겹쳐 쓴 문장의 깃발을 들고 나가 싸우게 했습니다.

다음날 AD 312년 10월 28일 티베르 강을 사이에 두고 접전이 일어났는데 콘스탄틴은 군사력의 열세에도 불구하고 큰 승리를 거두었고 막센티우스는 도망하다가 밀비안 다리에서 떨어져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콘스탄틴이 서방제국의 황제가 되었는데 그때 나이가 24세, 그리스도가 나를 도우셨다며 태양신을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해인 주후 313년에는 기독교의 예배와 신앙의 자유가 선포되는 밀라노 칙령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는 기독교를 공인했을 뿐 아니라 실질적인 혜택도 주었습니다. 관료의 요직에 기독교인들을 임명하고 교회의 재산을 환원하고 유배되었거나 투옥되었던 지도자들이 풀려났습니다. 교회에는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급격한 변화의 현장에서 역사가 유세비우스는 이렇게 썼습니다. "놀라운 일을 행하신 주님께 새노래로 찬양하라. 어둡고 고통스러운 날이 지난 후 지난날의 무거운 짐을 벗고 광명을 누리게 되었다." 그러다가 380년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기독교를 정식으로 로마의 국교로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전파의 흰 말이 결국 적그리스도국이었던 로마제국도 정복했습니다.

크리스천의 눈으로 본 세상



전남수 목사
(알칸사 제자들교회)

죄인된 인생과 공공의 책임

-조국, 공정의 상식, 회복

로 하여금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대답이었다.

하나님이 세우신 위정자들에게 대해 지지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성도의 책임이고 의무이다. 그러나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품격은 미국의 지향점은 아니다. 미국은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리더십을 가진 나라이지, 자기 배만 위하듯 하는 것은 온전한 미국의 모습이 아니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된 동성애 합법화의 문제들은, 다른 어떤 부분을 내려놓더라도 결코 우리 교회들이 양보할 수 없는 것이기에, 보수적 신앙의 관점에서 부합된 정책을 포함하는 트럼프 행정부를 지지하는 것이다.

제로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인생 전부를 걸고 이민 오신 분들을 보면 그런 상황이 이해가 어려운 것도 아니다.

고3 아이를 둔 한국의 친구 목사에게 들은 이야기는 대학을 진학하는 방법이 수백 가지가 넘는다고 한다. 한 가지 예를 들면, 타국에 머물면서 아이가 12년 동안 한국의 학교에 재학한 기록이 없는 경우 유명 사립대 특별전형에 해당되기에, 부모가 낯선 타향에서 떠돌이 방랑생활을 할지라도 오직 아이의 진학을 위해서는 당연히 희생한다는 것이다. 한국 부모들만이 가능한 이야기이다.

국 개인자신의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현 정권 전체가 가진 사상적 조류의 판단준거가 된다는 데 심각함이 있는 것이다. 금번 사건에 반응하는 정부의 행태나 정치가들의 입장을 보면 저들이 과연 한 나라의 지도자인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만들었다.

일건 지도자라고 할 때, 나라와 민족공동체에 대한 헌신과 충성이 최우선 요구되지만, 이들의 행태는 일반 개인의 상식적 기준으로서도 합당치 못한 것이다. 자신과 생각과 견해를 달리하면, 그 생각의 꺼리들은 전혀 중요하지 않게 취급한다. 그들에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사고의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나를 반대하면 무조건 부모적인 원수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렇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그 생각의 갈래들 속에서 좌와 우 어느 한쪽의 선택의 결과지만을 강요할 뿐이다.

을 본다. 사람에 대해 신앙을 요구하는 것을 본다. 그런 광팬이 존재하더라도 최소한의 상식을 따르는 일이 바탕은 되어야 나라꼴이 되지 않겠는가?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금번 일을 통해서 드러난 유익함도 있다. 그의 생각과 삶과 판단준거들을 보면서 진보진영의 정의로움이란 것에 대한 환상이 깨어지고, 저들의 위장된 선이 드러난 것이다. 물론 보수진영이라고 해서 온전할 수는 없겠지만, 기대감 자체가 다를 것이기에 비교불가능한 것이다. 정의로움이라는 이름의 사상에 경도된 체 저들 정치세력이 가지는 장기집권의 꿈을 그대로 인정하고 갔더라면 조국과 민족의 미래는 정말 참담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조국, 대한민국, 편법

인간죄성, 표리부동, 관용

최근 한국에서 일어난 한 장관에 대한 좌우 진영의 세력싸움에 대단하다. 오늘 아침에 그의 사임소식이 들려지지만 두 달 동안 진행된 일들을 보면, 한국사회가 얼마나 좌우 진영의 편가르기가 도를 넘어섰는가를 알게 된다. 한마디로, 사람자체에 대해 신앙적인 믿음을 드러내는 과정이었다. 좌우 모두 하나의 종교집단들이 행하는 것처럼, 상식과 이성을 넘어서서 무조건적지지 속에 내일을 예비하지 않을 듯 갈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뉴스를 통해 보면 그의 모습은 '내로남불'의 전형이다. 법을

조국이라는 사람의 이력은 화려하다. 부족함 없는 가정가문에 학력과 기타 사회적 조건에 있어서 우월한 기력이다. 그런 사람에게 이런 저런 평범한 소시민적 결부들에게나 나라날 일들이 일어났으니 경천동지할 일이 분명하다. 그러나 한편 인간죄성의 문제를 가지고 생각해보면 표면적으로 드러난 문제들은 이해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다.

실제로 사람자체에게 무슨 완전함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인가? 표리부동한 면을 가진 인간죄성의 열매를 가진 사람이 어디 그 사람뿐이겠는가? 어떤 면에서는 권력을 추구하지 않는 인간이 없는데, 그에게 주어

참과 거짓, 유익함

성도다운 해법

과연 이들이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인가? 보통의 범부들과는 비교할 수 없이 많이 배우고, 고도의 정치적 훈련을 통하여 나라와 민족을 섬기기 위해 자원하여 나온 이들이 저들 아닌가? 그러나 금번 조국 사건을 통해서 드러낸 것은, 오로지 더러운 욕심에 근거한 정치집단의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것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다시 성도다운 해법을 생각한다. 긍정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절대주권 안에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실 주님을 생각하며, 궁극적으로 지향하

고 바라볼 것을 생각하게 된다. 느헤미야와 같은 마음으로 통곡하며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이민자의 삶의 현실에 얽매어 순간순간 그냥 고통 속에서 살아가다 보니 모든 것이 자기중심적이다. 내게 나타난 문제가 아니면 관심 밖의 일이 되고 만다. 그러다보니, 조국을 위해 울 일도 없고 금식할 일도 없다. 느헤미야처럼 조국을 생각하면서 오랜 시간 금식하며 통곡하며 기도할 일은 기대할 수 없는 현실이다. 자신의 일에만 경쟁하고 싸우고 욕심에 얽매어 분노하고 미워하는 것이 이민자의 현

실이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알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다시 또 다시,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 조국과 민족을 위한 책임을 감당해야 한다.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있던 조국 이스라엘을 향한 그런 불타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느헤미야는 그저 밧을 걷고 기도했다. 기도해야 한다. 급한 만큼 그렇게 목숨을 걸고 기도할 때,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될 것이다.

기독교 명저로의 초대(6)

이윤석 목사 (NY 부르클린제일교회)



제 2편 실낙원(중)

3. 구조분석

이 서사시는 성경해석 학자 릴랜드 라이켄(Leland Bryken)이 분석하는 것처럼 교차구조(Chiasm)로 부르는 형식으로 배열할 수 있다. 첫째 1권에서 3권까지 사탄의 타락활동은 맨 나중의 10-12권까지의 인류타락의 활동과 맞물려 유비를 이루고 있다. 두 번째는 낙원을 차지하는 내용인 4권과 낙원을 상실하는 내용의 9권은 대조를 이룬다. 세 번째 천상에서의 전쟁과 파고를 다루는 5-6권은 세상 창조로 보완되는 7-8권과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것은 또 다시 간략하게 줄인다면 1-2권은 사탄과 지옥, 3-4권은 천국과 낙원, 5-6권은 천상에서의 전쟁, 7-8권은 세상의 창조, 9-10권은 타락, 11-12권은 장래 역사에 대한 환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구조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놀랍게도 이 이야기의 활동에 네 개의 우주적 배경-천국, 지옥, 타락 전 낙원, 통상적인 타락의 역사-에 입각하여 일어나고 있음을 깨달을 수 있다.

4. '실낙원'을 읽기 위한 도움

밀턴의 일차적 관심사는 독자들에게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심상들(images)을 통해 낙원으로 인도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낙원'을 읽을 때, 저자가 가진 정교도적 관념에 대한 해설을 발견하려하기보다는 우리 믿음의 심상들을 깊이 삼고 하면서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하는 것이 훨씬 더 큰 이익일 것이다. 서술 장면, 인물, 사건들을 광범위하게 포함하는 그의 심상은 성경에 뿌리를 두고 있으나, 그의 표현은 많은 부분이 픽션(fiction)이란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픽션에 대한 밀턴의 전략적인 목적은 우리를 영적인 실재들에 생생하게 다가하도록 이끈다는데 있다. 예를 들어 1-2권을 읽는 동안 우리는 악과 지옥의 심상을 볼 수 있으며 천국과 낙원의 완전한 모습에 대한 심상을 살펴볼 수 있다. 그런 후에 상상을 통해 천상에서

의 전쟁과 하나님의 완전한 세상 창조를 그려보면서, 이어서 완전한 상태에서 타락하는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 그런 다음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타락한 인류역사를 살피며 잠재적인 구속(redemption)에 대해 확인하게 된다. 여기서 미래에 대한 환상이 그리스도의 속죄하심에 초점을 두고 펼쳐지기 때문에 구원과 관련된 이미지들이 등장한다. 동산을 떠나는 장엄한 마지막 장면은 성도들이 인간적인 사랑과 신적인 섭리를 통해 위로를 받고, 타락한 세상에서 구속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청교도의 전형적인 패러다임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5. 실낙원에 나타난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치들

1)죄의 사악함과 불순종 사탄이 불복 속에서 일어나 천국에서 추방된 것에 대해 하나님께 보복할 방법을 결정하기 위해 마귀 회의를 연다. 사탄과 사탄의 세력에 대한 광경에서 저자는 죄

와의 유혹과 타락을 서사적으로 표현하면서, 미래에 천상의 은혜가 인간의 죄악성과 싸우게 될 것을 서사적으로 드러내고 있다(2:359-360).

2)하나님의 속성과 주권 밀턴이 강조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다. 밀턴의 시에서 성부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지옥을 포함한 우주주 주관하신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주의 드라마의 모든 장면에서 활동하신다는 사실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며, 무엇보다 3권의 전반부에서 묘사되는 천국의 장면에서 가장 잘 표현되고 있다.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죄와 처벌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공의는 자연스럽게 실체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 가서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대속하시는 사랑이 하나님의 공의보다 더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성자 하나님께서 천상의 대화에서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자비가 처음부터 끝까지 찬란하게 빛나고 있다(3:134).

3)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시는 성자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을 적극적으로 행하시는 분은 성자 하나님이며, 세상에 대한 구속의 주제를 가장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성자와 관련해서다. 이 강조점은 이 작품의 시작에서 확인되는데, 에덴의 상실이라는 이야기의 주제를 선포

4)섭리에 대한 강조

밀턴은 섭리(providence)를 강조하는데 이 교리를 통해 그 자신은 그의 작품 전체에 걸쳐 지속적으로 위로를 받았다. 첫 부분에서, 자신의 목적이 "영원한 섭리를 증명하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길을 옳게 드러내는데 있다"고 선언한다(1:25-26). 그는 타락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권능을 세상의 악과 고통이라는 사실과 조화시키는 신정론(神正論)을 제시하고 있다. 저자는 아담과 하와가 동산을 떠나는 마지막 장엄한 결말 장면을 묘사하면서 "섭리가 그들의 안내자였다"고 덧붙인다(12:647).

5)기독교적 인간관

이 작품에서 인간들은 이중의 능력 곧 선을 행하는 능력과 악을 행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에 의해 완전하게 창조되었으나 스스로의 불순종으로 인해 타락한 인간들은 그리스도의 속죄로 인해 구속을 얻고, 그 구속의 한 부분으로서 영원히 영광을 얻으리라는 소망 속에서 살고 있다. 이것은 청교도 철교가 윌리엄 퍼킨스가 "인간은 창조된 존재, 타락한 존재, 거듭난 존재, 영광 받을 존재라는 4중적 상태 속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표현한 생각과 동일하다. 밀턴의 묘사에 따르면 인간은 도덕적 선택 능력을 부여받았고 그 선택에 대해 하나님께 책임을 져야 할 존재로 인식한다.

6)성경적 역사관

저자 관심사는 기독교신앙의 중요한 심상들을 통해 낙원으로 인도하는 것 선과 악 사이 영적, 도덕적 전투 보여주는 영문학 중 강력한 실례의 하나

의 사악함을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저자는 이 불경한 무리가 보여주는 감정과 태도를 통해서 죄가 얼마나 사악한지에 대한 해부도를 드러냄으로, 우리로 하여금 사탄과 영적 악이 통치자와 권세들 가운데 존재한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한다. 동시에 이 사실을 통해 우리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 수 있기에, 우리의 삶의 상황도 살펴야 한다는 전제를 가지고 읽게 된다. 사탄과 지옥에 대한 저자의 묘사는 인간의 상태에 대한 은유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우리 자신의 삶과 상황 속에서도 지옥의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죄를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강조하고 있다. 실낙원의 첫 장면은 밀턴이 이 서사시의 주제로 이름을 붙여 놓은 "인간 최초의 불순종"이다. 그는 죄를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을 행하는 것"으로 표현한다. 이 작품은 아담과 하

한 다음, 즉시 "그 후 마침내 더 위대한 그 한 사람, 그가 우리를 구속하고 복된 자리로 회복시켜 주시리라"(1:4-5)고 언급하는 데서부터 알게 된다. 천국에서 대화를 나누는 극적인 순간에 성자는 인류의 구속을 책임지겠다고 자원하신다. "따라서 구속이 없으면 모든 인류는 잃어버린 자가 되어 죽음과 지옥에 떨어져야 하리라. 하나님의 아들이 없었더라면, 가혹한 파멸, 그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거하고 그분의 소중한 중보로 이처럼 새롭게 되나니..."(3:222-26). 타락 이후에도 아담과 하와의 비참한 곤경 속에서 그들의 위대한 중보자로서 개입하시는 분이 성자시다(11:19). 밀턴은 그리스도 중심사상을 강조하는데, 그것은 천상의 전쟁 당시에 사탄을 패배시킨 당사자를 그리스도라고 소개함으로써, "승리자이신 그리스도"를 부각시킨다.

'실낙원'의 기반을 이루는 성경적 역사관은 세상의 역사는 영원히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성경적 역사관은 완전한 상태에서 시작되었으나 이 상태는 아담과 하와의 죄의 타락으로 인해 상실된다. 이후로 오랫동안 죄의 상태에서 고통스러운 인류의 역사가 이어지고, 이 이야기 속에서 신앙의 행위는 찾아보기 어렵다(12:535-36). 그러나 시간은 결국 멈출 것이며(12:555), 무한한 날의 시대인 새 하늘과 새 땅의 의와 영광과 사랑에 뿌리를 두고 세워질 것이다(12:5439-50).

7)사탄의 내면적 절망과 심리

실낙원의 전체에서 독자들로부터 가장 즐겨 읽히는 부분은 사탄과 반역천사들이 주로 등장하는 시의 앞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13면으로 계속>

영성칼럼

이희녕 사모 (프린스턴한인교회)



기복신앙의 열매

참고 성경: 왕하 7-12장

하나님을 섬긴 왕 여호사밧이 어찌하여 하나님을 대적해 바알을 섬기는 악한 아합과 이세벨의 아들을 결혼시켜 우상숭배로 유다를 더럽히게 하는 큰 죄를 범했는지? 하나님보다 실리가, 정략결혼으로 부추기는 우상숭배의 세상 풍조를 그대로 따른 기복신앙의 병폐가 불신앙보다 더 악하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악인에게 돌아오는 하나님의 악인 경연법이다. 이를 악물고 하나님을 대적하다 극악하게 악이 다다르니 아합의 집에 속한 자를 저보다 더 사나운 예후를 일으켜 멸하게 하시고 그에게 4대를 약속하시나 여전히 금송아지를 섬기는 몰질사랑에서는 돌이키지 않았다. 필요한 것을 하나님에게서는 행하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만나고 은혜를 나눔은 놀라운 복이다.

권력을 온갖 수단 방법으로, 왕좌를 차지하면 세상이 제 것으로 착각해 반역이라 악쓰는 아합의 딸 아달라의 발악을 본다. 결국 아합의 씨의 끝까지 악으로 만능 한 듯이 최후도 비참히 죽었다. 권세가 큰 행복을 안겨다주었다고? 그리 탐욕을 부렸는지? 사람이 사람됨을 잃어버림이 가장 비극이 아니겠는가!

게다가 생명의 은인 대부분의 믿음을 배은 망덕하게 제 갈 길을 가는 요아스를 보며 나의 지나친 의가 자녀들에게 덕이 되는지? 반감을 일으키는지? 여호아다를 보며 의의 이름으로 주님의 앞길을 막지 않았는지 자속한다.

사랑하는 주님!

기복신앙 여호사밧, 악한 기회주의 아합, 예후, 아달라, 은혜를 원수로 갚은 요아스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은혜란 곱감 빼먹듯 이기주의로 행기는 우리들의 모습이 보여, 고개 숙여 스스로 돌아봅니다. 사실로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얼마나 불안하고 괴로울지요! 저들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누구든 본인이 심은 대로 받고 세상을 살다가네요. 하나님께 의탁하지 않은 인생은 그저 고통 뿐입니다.

가난하던 부하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중심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저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요! 새삼스레 우리 주님을 알게 됨의 영광을 깊이 감사합니다.

heenlee55@hanmail.net

Worldwide Church Directory. Title: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서부(CA)교회안내. Lists various churches including 나성순복음교회, 나성영락교회, 나성제일교회, 나침반교회, 남가주순복음교회, 남가주사랑교회, 대흥장로교회, 디아스포라선교회, 미주양곡교회, 미주평안교회, 빛과 소금의 교회, 베델한인교회, 복음장로교회, 세계소망교회, 열매교회, 은혜한인교회, 주님세운교회, 주님의영광교회, 좋은마음교회, 코너스톤 교회, 톨렌스조은교회, 핼(PIM)선교회, 하늘소망교회, and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Each entry includes church name, pastor name, address, and contact info.



목회서신



강인국 목사 (미시야나한인교회)

아베여, 그대에게 감사하노라

지금 세계는 모락이 판을 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무역제재를 하면서-지금 당분간은 휴전을 하고 있지만-힘겨루기를 하고 있고, 일본의 아베 수상은 한국 경제에 타격을 주기 위해서 한국으로의 수출 제재라는 수를 던졌다. 이에 화가 난 한국 국민들은 일본상품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다. 앞으로 2, 3년 후에 세계판도는 어떻게 변하게 될까?

처음에는 아베의 그런 모락을 보면서 이게 뭐지라며 혼란스러웠다. 아베는 자신들의 손가락을 몇 개 자르더라도 한국의 손과 발을 잘라서 한국의 경제를 고사시키겠다는 생각이 아닌가? 그런데, 내가 내린 결론은 "아베여, 그대에게 감사하노라"라고 말하고

싶다. 나는 1982년에 미국을 향하여 오는 도중에 일본에 들렀다. 일본에는 고모님이 두 분 계셨고 상당한 숫자의 사촌들이 살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몇 주간 일본에 체류하면서 일본 사람들의 생활수준과 자세를 보고 상당한 충격을 받았다. 당시 한국은 일본에게 30년 정도 뒤져있다는 말이 있었었는데, 나는 100년이 지나도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들의 생활수준과 삶의 자세를 따라가기가 쉽지 않겠다고

절망감을 느꼈기 때문이다. 일본 사람들은 매우 공중 질서를 잘 지켰고, 그들의 도시와 주거환경은 매우 청결했으며, 그들의 몸과 생활에는 친절함과 겸손함이 깊이 배어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이었

다. 그리고 나는 미국에 와서 생활하면서 별 의식 없이 일본제품들을 구입해서 사용했다. 일본 제품들의 실용성과 가격대비 성능이 탁월했기 때문이다. 간혹 일본제품 구입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보면 속 좁은 사람처럼 왜 저럴까라고 생각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민생활 중에 일본친구들도 몇 명 생겼는데 그들은 정직했고 타인을 돕는 것을 좋아했다.

하지만, 점차적으로 일본정부가 하는 일들을 보면서 분노를 느꼈다. 그들은 패전 후에 일제 강점기에 저지른 자신들의 죄악에 대해서 사죄하며 작은 보상을 한 적도 있었다. 그런데, 일본 정부는 점차적으로 자신들이 저지른 일들을 부정하고 미화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침략전쟁을 동양의 발전과 평화를 위해서 일으킨 전쟁이라고 주장하였고, 강제징용과 위안부 사건, 그리고 천안공로 할 살육들과 잔혹한 생체실험 사건 등을 부정하였다.

그리고 독도가 자신들의 땅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며 과거의 군국주의 야욕을 드러내면서 주변 국가들을 무력과 경제력으로 지배하려고 하였다. 그런 일본정부의 모습들을 보면서 나는 약 15년 전부터 혼자서 일본제품 불매운동을 벌여왔다. 그러던 차에, 일제 강점기에 강제징용을 당한 몇몇 어르신들이 당시 일본기업에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한국의 대법원은 일본기업이 피해자들에게 보상해줄 것을 판결하였다. 그것을 문제 삼은 아베는 그에 대한 보복으로 한국의 경제와 정부를 자신들의 발 앞에 꿇게 하기 위해서 반도체 핵심재료들에 대한 수출 제재를 선포했던 것이다. 한국은 그동안 그런 핵심소재들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이 경제적이었으며 상호간의 무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런 소재들을 개발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일본은 그러한 한국의 약점을 노리고서 자국에서 생산되는 반도체 핵심소재들을 한국에 더 이상

공급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아베는 자신들이 손해를 조금 보더라도 한국의 반도체 사업과 한국 경제를 무너뜨리겠다는 술수인 것이다. 아베와 일본각료들의 이 결정은 차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아베는 그 선전포고를 통해서 일본 정부의 작은 마음을 세계만방에 다 보여주고 말았다. 아베의 그 옹졸한 모략은 보통사람들이 할 수 있는 보편적인 생각이 아니고 뭔가 흘렸다는 생각이 들었다. 누가 아베의 마음을 그렇게 아둔하고 광박하게 만들었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하나님께서 작은 나라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 주시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강박케 하셨다 (출9:12). 그 동안 하나님께서는 작은 나라 한국을 통해서 세계를 향하여 수많은 선교사들을 보내어서 영혼들을 구원하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한국을 더 크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아베의 마음을 강박케 만드셨다는 생각이 들었다. 한국의 경제는 당장 몇 년 동안은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은 이런 시련을 통해서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로 발돋움하게 될 것이다. 아베는 큰 실수를 한 것이다. 아베는 자승자박, 자신이

년 죄에 스스로 묶일 것이고, 그에 대한 응분의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왜 그런가?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이다. 반성하지 않는 사람과 국가는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며(눅13:5), 다른 사람과 국가를 존중하지 않고 악을 도모하면 반드시 망하게 될 것이며(삼상12:25), 다른 사람과 국가와 더불어 선한 일과 평화를 도모하지 않는 죄는 반드시 망하기 때문이다(약3:13-18, 시10:2).

아베의 잔꾀가 방아쇠가 되어서 한국인의 의식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발전할 것이다. 아베의 잔꾀로 말미암아 한국은 일본의 경제 식민지에서 벗어나서 당당히 세계 일등국가가 될 것이다. 그러니, 아베에게 감사하지 않을 수 없다. 국제정세를 분석하는 미국의 시사지 'Foreign Policy'는 2012년 5월 17일 자에 Bruce Jones와 Thomas Wright 기자의 Meet the GUTS라는 기사를 실었다. 이 기사들은 가까운 미래에 한국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4대 강국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고 하였다 (https://foreignpolicy.com/2012/05/17/meet-the-guts/). 아베의 도발로 말미암아 이 기사가 더 빠른 미래에 현실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dik0184@yahoo.com

과 단원들 모두 한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연주회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베로니카함 한아름 여성합창단 총무 사회로 시작된 이날 연주회는 김옥선 한아름여성합창단 단장과 최재홍 한아름선교합창단 단장이 인사했으며 한정 목사(한아름 선교합창단 고문) 시작기도로 시작했다. 연주회는 소프라노 조은아, 한아름여성합창단(지휘 이해경), 베이스 이사효, 한아름남성합창단(지휘 이해경), 이해경과 조명준의 율건과 피아노 합주, 소프라노 김은혜가 무대에 올라 아름다운 화음을 선사했다. 이날 연주회는 운태한 목사(한아름선교합창단 고문) 축도로 마쳤다. (박준호 기자)



월드미션대 OC상담심리대학원 ISF 세미나에서 송경화 교수가 강의하고 있다

'내안의 나 만나기' 주제

월드미션대 OC상담심리대학원 ISF 세미나

월드미션대학교(총장 임성진 박사) OC상담심리대학원은 내면가족치료(ISF) 10주 코스 세미나를 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내 안의 나 만나기' 주제로 열었다. 이번 세미나는 송경화 교수(

본교 교수, 클리어몬트한인교회 사모)가 강사로 나서 열띤 강의를 인도했다. 송경화 교수는 "우리 각자의 마음에는 다양한 성향의 파트들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다양성을 가지고 있다"며 "하지만 특정한 파트

가 마음을 장악하게 되면 다중 인격장애에 빠지게 된다. 다중 인격장애는 우리 안의 여러 인격을 모두 장악하는 것"이라 설명했다.

송 교수는 "우리안의 파트들이 적절히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좋다"며 "이를 위해 셀프리더십을 가져야 하는데 셀프가 리더십을 회복하게 되면 각 파트들을 돌보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내면의 파트들은 셀프를 만나고 싶어 한다"며 "파트와 셀프가 많이 만날수록 내면이 풍요로워진다"고 설명했다.

이번 세미나는 오는 12월 11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2시까지 열리며 10주 코스 수료자는 본교 입학식 1학점이 인정된다. 자세한 것은 (213)388-1000로 문의하면 된다. (박준호 기자)



제6회 한아름 합창단 연주회가 미주평안교회에서 개최됐다

멕시코 손도걸 선교사 후원

제 6회 한아름 합창단 연주회 성료

제 6회 한아름합창단(단장 최대홍 뮤직디렉터 이해경 목사) 연주회가 13일 오후 6시 미주평안교회(담임 임승진 목사)에서 열렸다.

최재홍 단장은 "10여년간 합창 활동하면서 이번 연주회는 멕시코에서 선교하시는 손도걸 선교사를 후원하게 돼 감사하다"며 "오늘 연주회가 청중들

하나님의 구원계획 센터 GPS CENTER

도서안내



- 하나님의구원계획 10권
- 성경도표
- 다니엘, 계시록(상,하)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책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책
- 구약, 신약, 사도행전 DVD
- 다니엘계시록 DVD
- 70이레, 최고의 복, 계 1:7 DVD
- (영어책)구약, 신약, 70이레
- (중국어책)하나님의구원계획 4권
- 구약, 신약, 사도행전 공과(Power Point)
- 다니엘, 요한계시록 공과(Power Point)
- 하나님의 구원계획(Power Point)



하나님의 구원계획 성경공부를 인도하실 사역자들은 소정의 교육(7시간)후 POWER POINT와 모든자료를 공유하겠습니다. 뉴욕제자들과교회:(917)588-2934 / (917)968-1024

도서주문 연락처 (917)588-2934, (917)968-1024 / 주소: 27-23 Bayside Ln, #1FL, Flushing NY 11358 Email: Gpscenter2014@gmail.com / 미주크리스천신문 718-886-4400(NY), 323-665-0009(LA)(판매)

인/터/뷰

월드미션대학교 예배학석사과정 디렉터 가진수 교수

“예배에서 하나님 만나 기쁨으로 세상 살아가야”

월드미션대학교(WMU 총장 임성진 박사)가 한인신학교 최초로 예배학 석사과정(MA in Worship Studies)을 개설한다. WMU는 2020년 봄학기부터 예배학 석사과정을 시작하며, 학생들로 하여금 교회 예배 사역과 관련된 지도력을 갖추고 예배 기획과 예배 인도의 역량을 갖추도록 하는 목적을 가지고 운영된다. 이를 위해 본 과정 디렉터로 초빙된 가진수 교수와 인터뷰를 가졌다.

가진수 교수는 예배학석사 과정이 미국신학교에서는 오래전부터 개설되고 자리잡아 왔었지만 한국 및 한인신학교에서는 전무한 실정이었다고 언급했다.

“아무래도 예배학에 대해 가르칠 사람이 한인 중에는 많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예배학에 대한 과정을 열지 못했었다고 보여집니다.”

가 교수는 예배학은 신학교에서 교과과정으로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하며 그 이유는 교회의 노력화에 따른 쇠퇴기에 접어든 것 이라고 지적했다.

“교회사역을 30여 년간 해왔는데 교회현장에서의 경험은 한국교회의 연령대별 구조가 역삼각형으로 되어있다는 겁니다. 예상통합측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통합측 교회의 70% 정도가 주일학교가 없다고 하고요. 청소년들은 부모에게 이끌려 교회에 가지만 부모와 떨어져 있게 된다면 교회에 가지 않겠다고 하는 비율이 80%입니다. 그야말로 1세대 위주의 교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대가 교체가 될 때쯤이면 교회는 절벽으로 떨어지게 될 가능성이 열려버렸다는 것입니다.”

가진수 교수는 다음세대들이 교회에 대한 관심이 줄어든 것은 교회에 대한 매력을 찾지 못해서라고 말했다.

“자녀세대들에게 있어서 교회는 마치 고대유적 같은 곳입니다. 컨셉이 70년대에 머물러 있으니까요. 굳이 교회에 가지 않더라도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세상에 많이 널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는 곳이어야 하고 그것은 바로 영적인 기쁨인데 그것을 교회가 젊은이들에게



가진수 교수

공급해주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가 바로 젊은이들의 발길이 끊어지게 됐고 교회는 늘어버리게 됐습니다.”

그는 교회가 해야 할 중점 사항은 ‘하나님과 만남’이

가진수 교수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월드미션대학교의 예배학 석사과정 개설은 매우 의미가 있다며 본 과정을 통해 교회의 예배가 다시 살아나고 1세대뿐만 아니라

를 하는 것입니다. 기도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하며 말씀도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예배개혁은 영과 진리로 개혁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요4:24)라고 말씀하신 것이 중요합니다. 영적인 부분과 마음을 드리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로 마음이 가고 있는지 가 관건입니다”

가진수 교수는 “예배 역시 훈련이 필요하다며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가 성장으로 이어지며 젊은이들이 계속 모이게 된다”고 언급했다.

또한 “야성 있는 사자 한마리가 천마리 양과 염소보다 낫다. 본 과정을 통해 그런 사람을 키우고 싶다”며 “젊은이든 목회자든 상관없이 교회에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자를 많이 배출되고, 예배 속에 하나님 인재를 경험하게 되는 인도자가 되기 바라며 그들을 통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뤄지는 예배가 많이 생겨나게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가진수 교수는 인화대학교 영문과(BA), 그리스도대학교 신학대학원(M.Div), 침례신학대학교 대학원(Th.M), 협

2020년 봄학기 시작 2년 과정 48학점 이수, 타미워커 등 강사 예배전문사역자 양성... 예배사역 지도력, 예배 기획 인도하도록

라고 언급했다.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 만남을 통한 기쁨이 힘이 돼 세상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과 교제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주일 교회에서 드러지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이 이뤄져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은 영적기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은 예배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는데 예배에는 찬양, 기도, 말씀, 성찬 4가지 요소가 포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잘 드려야 하는데 말씀과 기도의 약화로 인해 영적 고리가 끊어지게 되었습니다. 단지 교회는 봉사단체 같이 돼버렸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약화된 가운데 교인들끼리의 교제하는 곳이 돼버린 것 같고요.”

음세대들도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다시 이뤄지게 되길 바란다

고 말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만드신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자라면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이 평생 삶이고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하는 것을 가져야 합니다. 하지만 예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에 깊이 있는 예배인도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예배학 석사과정의 최종목적은 예배전문사역자 즉 예배를 전문적으로 감당하는 리더십을 배출하는 것이 목적이란데 그 목적에는 목회자 외에 청년 등 평신도도 해당된다고 언급했다.

“예배자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행위

성대학교 음악대학원, 풀러신학교(D.Min)를 졸업했으며 플로리다 웨버데 대학원 예배학박사과정을 수학했다. 현재 글로벌워십미니스트리와 도서출판 워십리더 대표, 예배연구소 소장, 서울기독교대학교 신학전문대학원 강사 및 겸임교수, 그리고 한국장로교회 협동목사로 사역하는 등 예배사역 갱신을 위해 힘쓰고 있다.

2020년 봄학기에 시작되는 예배학 석사과정은 2년 과정이며 총 이수학점 48학점이다. 강사는 세계적인 찬양사역자 타미워커를 비롯해 그레이쉬어, 에드윈 윌밍턴, 정종원 목사, 김성리 목사가 참여한다.

문의: (213)388-1000(Ext. 131) ایمۆك ٱٱٱ, ایمیل: admissions@wmu.edu (박준호 기자)

원로칼럼

완주자의 노래(하)



박중순 목사 (총신교회 원로)

정치가 꼬이고 계층이 대립각을 세우는 것도 교회와 갈등과 분쟁의 흥역을 치르는 것도 따져보면 네 탓으로 떠넘기는 악성 바이러스 때문이다.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위기의 폭풍도 외면할 수 없다. 물론 원인과 단초를 제공한 것은 나와 우리라고 치자. 그러나 외풍이 너무 심하다. 마치 컨소시엄이라도 이런 것처럼 모든 매체와 단체들이 비난과 공격의 화살을 날리고 있다. 그런데 교회는 방패도 없고 갑

옷도 없다. 이쯤에서 한국교회는 자중지란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 교회연합체의 균열도, 교회 내의 갈등도 끝점을 찍어야 한다. 더 이상의 추락을 막아야 한다.

바울은 다양한 사역자였다. 사도였고, 신학자였고, 목회자였고, 선교사였다. 그리고 대설교자였고, 교회 개혁의 선구자였다. 바울 같은 철저한 복음의 사람이 되고 목사가 되는 것이 필자의 이상이였다. 그러나 그가 겪었던 온갖 박해와 고난, 아픔과 가난은 싫었다. 그러니까 돌이켜 보면 필자는 함람미달 목사였고, 빛다 만 그릇이였다.

바울의 위대함을 한두 가지로 적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신학의 샘은 팔수록 깊었고, 신앙의 탑은 우러러보기 힘들 만큼 크고 높았다. 그의 청빈은 너무나 맑고 깨끗해 흉내조차 힘들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처럼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는 그 한마디에 머리를 들 수 없다.

더더욱 감동적인 그의 행적은 마무리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딤후4:7)라는 완주자의 노래, 멋진 마침표가 감동적이다.

싸움은 상대가 있기 마련이다. 다시 말하면, 적과 싸워야 한다. 바울은 그 대상을 “혈과 육이 아니라 세상 악한 권세들과 악한 영들이라”했다(엡6:12). 우리는 싸움의 대상 설정에서부터 잘못을 저질렀다. 전우를 적으로, 형제를 원수고 여기고 싸웠다. 결핍하면 교파를 나누고 갈라서기를 되풀이 했다. 치졸한 싸움판에서 기선을 잡았노라 하며 개선의 노래를 불렀고 지금도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느라 믿음은 송두리째 저버리고 혈과 육을 동원해 싸움판을 벌이곤 했다. 일평생 걸어온 목양길의 동기와 과정이 믿음이었나를 돌이켜 보면 부끄럽고 송구하다. 하나님의 목회하면서 잔머리 굴린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는 바울의 고백은 목회를 내려놓은 지금도 태산처럼 다가온다. 그리고 “다 이루었다”는 주님의 말씀도 떠오른다(요19:30).

최선을 다하는 것이 목회자의 삶이어야 한다고 임버릇처럼 되풀이 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되돌아보면 책임지지 못할 말을 내뱉었다는 자괴감으로 괴롭다. 앞에서 다시 목회를 한다면 이런 목회를 하고 싶다는 소회를 밝힌 적이 있다. 그러나 “최선을 다했는가” 할 만큼 했는가?라는 물음엔 입을 열 수가 없다.

동역자들에게 권하고픈 말이 있다. 그것은 목회에 마침표를 찍는 날 완주자의 노래를 부르자는 것이다. 목회뿐이겠는가? 인생도 그렇다. 언젠가 우리는 인생 삶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그때가 언제 인가는 보내시고 부르시는 주님만 아신다. 지금 누리는 그 자리, 머무는 그것, 움켜쥔 그것들은 내려놓아야 할 것들이다. 목사는 교인들에게 욕심을 버리라고 설교한다. 그러나 목사에게 욕심을 버리라, 내려놓으라, 낮추라고 설교할 사람은 자기 자신이다.

비행기는 엄청난 양의 화물과 사람을 싣고 장시간 하늘을 난다. 그러기 위해 최첨단의 기법과 강한 소재를 개발해 동체를 만든다. 그리고 거추장스런 인테리어나 장식을 피한다. 코끼리가 하늘을 나는 비결은 체중을 1만분의 1로 줄이는 것이다. 과체중, 과부하, 피할 것들이다. 들림 받는 그날, 바울처럼 완주자의 노래를 부르고 싶다. 빈손으로 주님의 그 큰 손을 덥석 붙잡고 싶다.

jj46923@gmail.com

실천적 복음주의 신학의 새로운 물결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

학위과정:

성경사역학철학박사 PhD / 목회학박사 DMin / 교육목회학박사 DEdMin / 목회학석사 MDiv

선교목회학 DMin in Missions

설교목회학 DMin in Expository Preaching

미남침례교단 6대 신학대학원 | 탁월한 교수진 | 저렴한 등록금 | 한국부 517명 재학 | HLC & ATS 정식인가 | 상시입학 | 100% 한국어 강의 | I-20 발행



for the Church MID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미드웨스턴 한국부 사무실

최세롬 사모 816-414-3754; ks@mbts.edu; www.mbts.edu

